

# 정유년,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에 전북이 새 시대 주역될 것

## 전문근사의 자세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할 것

〈切問近思〉

### ▶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 붉은 닭의 해입니다. 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활기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대선 정국과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추진 등 전라북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시대의 명령인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가 새 시대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알찬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생활안전과 도민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2023 세계잡버리 새만금 유치로 전북을 세계에 각인시키겠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만으로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딛고 일어나 아침을 보려는 자만이 가장 먼저 환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라북도 공직자들은 도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될 것입니다. 부지런한 어머니가 차려주는 푸짐한 아침상처럼 알차고 따뜻한 도정을 펼칠 것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절실하게 묻고 살펴 실질을 추구하는 전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유년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전북교육

###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따스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업을 나누고, 평가를 혁신하여,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배움과 삶이 하나 되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공동체로서 흔들림 없이 청렴의 외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지요.

학교에서 꿈이 자라고, 마을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전북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되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인으로도 유명한 이혜인 수녀의 글 가운데 사랑할 땐 별이 된다는 시가 있지요.

전북교육의 별은 전북교육을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를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가꿀 것

### ▶ 김승수 전주시장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지난해 전주는 아시아 여행도시 3위로 선정돼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훗카이도와 상해의 뒤를 잇는 아시아 대표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전주를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만들어 2020년에는 파리, 로마를 뛰어넘는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승안마을, 서학동, 노송동, 원도심 일대를 세계적인 문화지구로 만들고 전주부성 복원, 역사도심계획 완성으로 독보적인 도시스타일을 만들 것입니다.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나아가 위대한 도시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인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욱 시민 결의로 다가하겠습니다. 동네복지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주거문제, 빛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시내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전주역을 비롯한 관광을 새롭게 단장하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아 TOP3의 명성에 걸맞게 관광경제를 일으키고,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떠받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청년 창업도시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전주의 오랜 지력과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들의 편에 설 것

### ▶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지난날의 혼란과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샘솟는 새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우리 국민의 단합된 마음과 협력으로 극복하여왔으며,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견디고 봄의 새순을 피어 올리는 인동초처럼 새 희망의 싹을 스스로 틔워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본향으로서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왔고,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선진외국의 일반이자 지역발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만관광객 시대를 맞이한 전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에 향한 큰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66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있는 꿈, 그 꿈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포부이고 미래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약한 곳에서 시민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꿈을 위해 동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전주시의회를 믿고 의지하고 지지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의회와 여러분이 꿈꾸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마부위침의 자세로 올 한해 쉽 없이

〈磨斧爲針〉

### ▶ 황 현 전북도의회 의장

도민 여러분! 대망의 2017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큰 발전을 이루고,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해가 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무주 태권도원 일대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목이 쏠려 있는 태권도대회를 잘 치르면 우리 전북의 가치는 높아지고 국제적 위상도 올라 갑니다.

태권도대회 성공개최를 통해 2017년 새해가 전북이 대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잘 아는 만큼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유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등 중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을 떠나 협치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그리고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마음 편히 양육하고, 학생들을 참된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지방재정개혁과 의원보좌인력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38명 도의원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있게 노력하면 이룰수 있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2017년 한 해 동안 쉽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도민과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희망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명단

### ▲부안군 하서면

- △신지마을 100,000
- △석하마을 143,000
- △월포마을 283,000
- △장원마을 143,000
- △신성마을 163,000
- △송림마을 103,000
- △등룡1마을 123,000
- △등룡2마을 213,000

\*\*계 1,271,000원



2017년 丁酉年

謹賀新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